

## 전봉준의 평화사상

박맹수 (원광대학교)

### 국문요약

이 논문은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1855-1895)이 농민혁명 과정에서 주장했거나 행동했던 내용에 나타난 평화사상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며,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894년 3월 20일에 포고된 「무장포고문」의 보국안민 네 글자 안에 전봉준이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사상이 들어 있다. 보국안민은 바로 부패한 조선왕조 지배체제 아래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생명, 생업,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평화사상의 발로 그 자체였다.

둘째, 전봉준은 동학농민군의 행동강령으로 4대 명의와 12개조 기율을 제정, 선포하였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으려는 불살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전봉준의 평화사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셋째,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 이전의 교조신원운동 단계부터 일관되게 폐정개혁을 통한 '정도의 실신' 즉 정치 혁명을 주장하였다. '정도의 실신'은 바로 정치적 평화 실현을 위한 전봉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끝으로, 전봉준은 만국공법을 지키지 않는 일본의 행위에 대해 만국공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봉준이 만국공법에 근거한 국제평화의 실현을 추구한 인물이었음을 증명한다.

주제어: 전봉준, 보국안민, 불살생, 정치혁명, 만국공법.

## I. 서론

1894년 3월 21일(음력)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全奉準)은 1855년에 지금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당촌 마을에 세거하던 천안 전씨(天安全氏)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름은 철로(鐵爐)요, 자는 명숙(明淑)이며,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녹두장군'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전북 김제군 금산면 원평리 일대에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전봉준은 원평(院坪) 부근의 서당(書堂)에 다녔으며,<sup>1)</sup> 20대 전후에는 태인현 동곡으로 이거하였다고 한다. 전봉준의 최후 진술을 담고 있는 『전봉준공초(全奉準供草)』<sup>2)</sup>에 거주지가 전라도 태인현(泰仁縣)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전봉준이 태인 동곡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동곡은 원평에서 지근거리에 있으며 농민군 지도자 김개남(金開南)이 태어난 마을이기도 하다. 또한, 공초에 따르면 전봉준은 1880년대 후반 즉 그의 나이 30대 무렵에는 태인 산외면 동곡을 떠나 고부군 이평면 조소리(鳥巢里)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19세기 후반, 고창 당촌 마을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김제 원평, 태인 동곡을 거쳐 동학농민혁명 수년 전에 고부 조소리에 자리를 잡은 전봉준이 거처를 옮겨가며 살아가는 동안 체험하고 목격했던 당대

- 
- 1) 전봉준이 어린 시절에 서당에 다녔던 김제군 금산면 원평리 일대는 1893년의 교조신원운동 단계에서 있었던 원평집회와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군량 조달 등의 책임을 맡았던 김덕명(金德明) 대접주의 출신지이자, 제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구미란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원평에 가면 지금도 전봉준이 다녔던 서당 터를 확인할 수 있다.
  - 2) 서울대 규장각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한 마이크로필름이 보관되어 있다.

현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밖으로는 ‘서세동점’과 안으로는 ‘삼정문란’으로 대표되는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있는 민초들의 신산(辛酸)한 삶 바로 그 자체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가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나쁜 병이 가득해 백성들이 사시사철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다”<sup>3)</sup>라고 지적한 현실과 조금도 다른 없는 현실이었다. 이처럼 ‘백성들이 사시사철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고 표현되는 위기의 시대에 태어나 각지를 전전하며 전봉준이 목격한 현실은 당대 민초들의 생명, 생업, 생활이 전면적으로 위협받는 위기 상황, 이른바 반평화적 상황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시대 상황을 타파하여 민중의 생명과 생업, 생활이 보장되는 세상을 열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열망을 집대성하여 등장한 새로운 사상이 바로 1860년 수운 최제우가 창도한 동학이다. 동학은 창도 초기인 1860년대에는 주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이어 1870년대에는 강원도 영서(嶺西)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포교되었으며, 1880년대 후반에는 전라도 일대(전주, 삼례, 익산, 고산, 부안, 태인, 고부, 정읍, 무장)에도 널리 전파되고 있었다. 전봉준은 1880년대 후반에 동학이 전라도에 급격하게 전파될 무렵, 태인 동곡에서 고부 조소리로 이사를 오면서 동학에 입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봉준은 왜 당시 조선왕조 지배층이 이단사술(異端邪術)로 배척, 탄압하는 동학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그 이유의 일단을 알 수 있는 내용이『전봉준공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한다.<sup>4)</sup>

문: 소위 동학이라는 것은 어떤 주의이며 어떤 도학인가?  
(所謂東學 何主義 何道學乎)

3) 최제우 지음, 박맹수 옮김, 『동경대전』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p. 43.

4) 국사편찬위원회, 『동학란기록』 하 (서울: 탐구당, 1971), p. 534.

답: 마음을 지켜 충효로 본을 삼고, 보국안민하고자 하는 것이다.

(守心 以忠孝爲本 欲輔國安民也)

문: 너도 역시 동학을 대단히 좋아하는 자인가?

(汝亦 酷好東學者耶)

답: 동학은 수심경천의 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한다.

(東學 是守心敬天之道 故酷好也)

위의 내용에 따르면, 전봉준은 동학의 가르침을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수심경천(守心敬天)의 도학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 나름의 해석을 하자면 ‘수심경천(개인의 영성)’과 ‘보국안민(사회 혁명)’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학이라는 도학이야말로 전봉준에게는 서세동점에 시달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 및 빈발하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에 시달리던 조선의 민초들을 건질 새로운 도학이었기에 그는 동학을 ‘혹호’(酷好; 대단히 좋아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동학에 입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르면 1888-1889년경, 늦어도 1890-1891년경에는 동학에 입도한 전봉준이 동학 교단의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1892년 7월 경부터 준비되어 전개되기 시작한 동학의 교조신원운동(教祖伸冤運動) 단계부터이다. 구체적으로는 1892년 음력 11월초부터 전개된 전라도 삼례집회 단계부터 전봉준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기 시작하였다.<sup>5)</sup> 교조신원운동은 동학 교단이 중심이 되어 ‘교조의 신원(동학 공인 요구), 지방관의 가렴주구 금지, 척왜양’ 등 세 가지 요구를 내걸고 전개되었는데, 전봉준은 그 중에서도 특히 서양 열강과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반대하는 척왜양 운동, 곧 외세의 침탈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외세 운동을 적극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6)</sup>

5) 崔炳鉉, 『南原郡 東學史』(필사본, 1924), pp. 3-8.

6) 최병현, 위의 책, pp. 3-8.

삼례집회 단계부터 지도력을 발휘한 전봉준은 1893년 2월의 서울 광화문 복합상소, 같은 해 3월 10일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충청도 보은집회 등에 호응하기 위하여 그가 어린 시절에 서당에 다녔던 원평을 중심으로 도인(道人: 동학 신자)들을 결집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교조신원운동은 조선왕조 지배층의 강경 탄압책과 열강의 간섭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교조신원운동 좌절 이후, 전봉준은 고부 조소리에 칩거하면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정(惡政)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여러 차례<sup>7)</sup> 제출했지만 번번이 추방당하였고, 진정서를 제출한 대표자들과 함께 탄압을 받았다. 이에 전봉준은 ‘사발통문 모의’<sup>8)</sup>를 해서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으로 상징되는 지방관들의 악정을 개혁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1894년 음력 1월 10일, 익산 군수로 전임 발령이 났던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로 눌러 앉게 된 바로 그 날, 전봉준은 고부 농민들과 함께 무력을 통한 악정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고부 농민봉기를 주도한 것이다. 하지만 고부 농민봉기 역시 2개월여에 걸친 장기간의 항쟁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에 전봉준은 자신과 운명을 함께 하고자 남은 5-6명의 동학 도인들과 함께 고부에서 무장(茂長)으로 피신하였다. 무장에서는 수천 명의 연비(聯臂: 동학 신자)를 거느리고 있던 대접주 손화중을 설득, 1894년 음력 3월 21일에 마침내 동학농민혁명의 봉화를 힘차게 올렸다.

학력과 사회적 경력이 보잘 것 없는 전봉준은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떤 심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을 당겼던 것일까? 그리고 혁명 실패 뒤에

7) 『전봉준공초』에 따르면, 1893년 11월에는 고부군수에게, 같은 해 12월에는 전라감영의 전라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투옥당한 후 퇴출당했다고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526).

8) 1893년 11월, 전봉준 등 고부 일대 동학 지도자 20여 명이 비밀리에 모여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정을 징치하기 위해 사발통문에 서명하고 봉기를 모의한 것을 말한다.

는 어떤 심경으로 죽음을 맞이했으며, 후세에 무엇을 남기고자 했던 것일까?

이 논문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 전봉준의 활동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전봉준이 추구하고자 했던 지향은 무엇이며, 그 지향이 평화사상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해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먼저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1894년 음력 3월) 전봉준이 작성하여 전국 각지에 포고한 것으로 알려진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에 주목하여 그 내용 분석을 통해 전봉준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의 의미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모여든 동학농민군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전봉준이 동학농민군 최고지도자로 추대되는 ‘백산대회’(白山大會; 1894년 음력 3월 25일경)를 전후하여 선포된 것으로 추측되는 농민군의 「사대명의(四大名義) 및 12개조기율(十二個條紀律)」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속에서 드러나는 평화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제1차 동학농민혁명 기간 내내 전봉준이 지휘하는 동학농민군 측이 중앙정부에 제출했던 각종 폐정개혁 요구를 집약한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 27개조」에서 읽을 수 있는 평화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포되어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심문 내용을 담고 있는 「전봉준공초」에 드러나고 있는 평화 관련 내용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 Ⅱ. 「무장포고문」과 보국안민

「무장포고문」은 1894년 3월에 전라도 무장현(茂長縣)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조선왕조 전체의 폐정(弊政) 개혁을 위하여 전면 봉

기를 단행하기 직전에 전국 각지에 포고(布告)하여 재야의 유교 지식인을 비롯하여 뜻있는 지방 수령 및 하급관리,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광범위한 호응을 촉구한 명문 중의 명문이다.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河合文庫)에서 발견된 제1차 동학농민혁명 관련 1차 사료 『수록(隨錄)』에 따르면,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1894년 3월 21일에 무장현 동음치면 당산마을(현재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시내 마을)에서 전면 봉기를 단행하여 복상을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고문은 적어도 봉기 직전인 3월 20일경 아니면 그 이전에 포고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무장포고문」은 전봉준이 직접 쓴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일설에는 당시 농민군 지도부 내에서 전봉준의 참모 역할을 했던 인물이 썼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작성자가 누구였든 포고문 속에는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의 당면한 시국인식(時局認識), 무장봉기(武裝蜂起)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이유,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는 강력한 개혁의지, 그리고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향촌사회 지지층의 광범위한 연대와 협조를 촉구하는 내용이 감동적인 문체로 서술되어 있다.

종래, 학계에서는 「무장포고문」을 농민군이 고부에서 전면 봉기를 단행한 뒤에 정읍과 부안, 흥덕을 거쳐 무장현을 점령했던 1894년 4월 12일 경에 포고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왔다. 예를 들면, 후래 동학 연구자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끼친 김의환의 『전봉준 전기』<sup>9)</sup>, 재일(在日) 사학자 강재언의 『한국근대사연구』<sup>10)</sup> 등에 실린 내용이 그것이다. 이 같은 오류는 익산 지역 동학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했던 오지영(吳知泳)의 『동학사』

9) 김의환, 『전봉준 전기』 (서울: 정음사, 1981), pp. 97~100.

10)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1982), pp. 168~169.

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동학사』에서 「무장포고문」이 포고된 시점을 갑오년 3월이 아닌 1월에 포고된 것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다.<sup>11)</sup>

「무장포고문」의 포고 시기를 3월이 아닌 1월 또는 4월로 오해한 이유는 첫째 1차 사료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농민군의 전면 봉기 장소를 무장(茂長)이 아닌 고부(古阜)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둘째 1894년 1월 10일의 고부민란(古阜民亂) 즉 고부 농민봉기를 3월 21일의 무장기포(茂長起包) 즉 제 1차 동학농민혁명과 별개의 사안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1월의 고부민란을 3월의 무장기포와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무장포고문」이 실려 있는 1차 사료로는 오지영의 『동학사』를 비롯하여, 매천 황현의 『오하기문』, 경상도 예천 유생 박주대의 『나암수록』, 관변 기록인 『동비토록』, 1893년 보은취회 단계부터 1894년 무장기포에 이르기까지 충청도 보은 관아에서 농민군의 동정을 탐지하여 수록한 관변 기록 『취어』, 일본 교토대에서 발견된 전라도 무주 관아에서 수집하여 남긴 관변기록 『수록』, 동학농민혁명 당시 서울 명동성당에 주재하며 농민군 관련 문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던 뮌텔 주교의 「뮌텔문서」,<sup>12)</sup>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줄포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파계생(巴溪生)이 쓴 「전라도고부민요일기」 등이 있다. 이들 사료 가운데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국한문(國漢文)으로, 「전라도고부민요일기」에는 일본어로 실려 있으며, 나머지 사료에는 모두 한문(漢文)으로 실려 있다. 관변기록인 『취어』에는 405자, 『수록』에는 400자의 한자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오하기문』과 『동비토록』, 『취어』 등에 실린 「무

11) 오지영, 『동학사』(서울: 영창서관, 1940), pp. 108~109.

12) 뮌텔문서는 현재 서울 명동 천주교회관 내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장포고문」을 서로 대조하여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무장 포고문〉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인륜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윤리는 인륜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것이다. 임금은 어질고 신하는 정직하며, 아버지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를 다한 후에라야 비로소 한 가정과 한 나라가 이루어지며, 한없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이다. 지금 우리 임금님께서서는 어질며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귀신과 같은 총명함과 성인과 같은 예지를 갖추셨으니, 현명하고 정직한 신하들이 보좌하여 돕기만 한다면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 때의 교화(教化)와, 한(漢) 나라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때의 다스림에 도달하는 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것처럼 시일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신하라는 자들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봉록(俸祿)과 벼슬자리만 탐내면서 임금님의 총명을 가린 채 아첨만을 일삼고 있으며,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라의 잘못을 충고하는 선비들의 말을 요사스러운 말이라 하고, 곧고 바른 사람들을 가리켜 도적의 무리라 하고 있다. 또한, 안으로는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을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만 많으니, 사람들의 마음은 날로 거칠고 사납게 변해만 가고 있다. 백성들은 집에 들어가도 기쁘게 종사할 생업이 없고 집을 나오면 제 한 몸 보호할 방책이 없건마는 가혹한 정치는 날로 심해져 원망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리와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윤리,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의 분별은 마침내 다 무너지고 남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일찍이 관자(管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유(四維), 즉 예의염치(禮義廉恥)가 떨치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형세는 그 옛날보다도 더 심하기 그지없으니, 예를 들면 지금 이 나라는 위로 공경대부(公卿大夫)로부터 아래로 방백수령(方伯守令)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라의 위태로움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몸 살찌우고 제 집 운택하게 할 계획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벼슬길에 나아가는 문을 마치 재화가 생기는 길처럼 생각하고 과거시험 보는 장소를 마치 돈을 주고 물건을 바꾸는 장터로 여기고 있으며, 나라 안의 허다한 재화(財貨)와 물건들은 나라의 창고로 들어가지 않고 도리어 개인의 창고만 채우고 있다. 또한 나라의 빛은 쌓여만 가는데 아

무도 값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교만하고 사치하며 방탕한 짓을 하는 것이 도무지 거리낌이 없어 팔도(八道)는 모두 어육(魚肉)이 되고 만백성은 모두 도탄에 빠졌는데도 지방 수령들의 가혹한 탐학(貪虐)은 더욱 더하니 어찌 백성들이 곤궁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인 바, 근본이 깎이면 나라 역시 쇠잔해지는 법이다. 그러나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방책을 생각하지 않고 시골에 집이나 지어 그저 오직 저 혼자만 온전할 방책만 도모하고 한갓 벼슬자리나 도둑질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어찌 올바른 도리라 하겠는가. 우리 동학농민군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입고 사는 까닭에 나라의 위태로움을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어서 팔도가 마음을 함께 하고 억조(億兆) 창생들과 서로 상의하여 오늘의 이 의로운 깃발을 들어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것을 죽음으로써 맹세하노니, 오늘의 이 광경은 비록 크게 놀랄 만한 일이겠으나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중요하지 말고 각자 자기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여 다 함께 태평성대를 축원하고 다 함께 임금님의 덕화를 입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겠노라. (고딕은 필자)

#### 〈茂長 布告文〉

人之於世最貴者 以其有人倫也 君臣父子 人倫之大者 君仁臣直 父慈子孝 然後 乃成家國 能逮無疆之福 今我聖上 仁孝慈愛 神明聖睿 賢良正直之臣 翼贊佐明 則堯舜之化 文景之治 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 不思報國 徒竊祿位 掩蔽聰明 阿意苟容 忠諫之士 謂之妖言 正直之人 謂之匪徒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官 人民之心 日益渝變 入無樂生之業 出無保軀之策 虐政日肆 惡聲相續 君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 遂壞而無遺矣 管子曰 四維不張 國乃滅亡 方今之勢 有甚於古者矣 自公卿以下 至方伯守令 不念國家之危殆 徒竊肥己潤家之計 銓選之門 視作生貨之路 應試之場 舉作交易之市 許多貨賂 不納王庫 反充私藏 國有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佚 無所畏忌 八路魚肉 萬民塗炭 守宰之貪虐良有以也 奈之何民不窮且困也

民爲國本 本削則國殘 不念**輔國安民之策** 外設鄉第 惟謀獨全之方 徒竊祿位 豈其理哉 吾徒雖草野遺民 食君土服君衣 不可坐視國家之危 而八路同心 億兆詢議 今舉義旗 以**輔國安民** 爲死生之誓 今日之光景 雖屬驚駭 切勿恐動 各安民業 共祝昇平日月 咸休聖化 千萬幸甚 (고딕은 필자)

위 포고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바로 보국안민(輔國安民) 네 글자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보국안민이란 용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시대는 세종조이다. 이른바 유교적 민본주의가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된 시대로 알려져 있는 세종조에 보국안민이란 용어의 용례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세종조에 널리 사용되었던 보국안민은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차 그 용례가 줄어들다가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의 「포덕문(布德文)」(1861년)에 와서야 전격적으로 다시 부활한다. 수운은 1861년 6월경에 쓴 「포덕문」이란 글 말미에서 ‘백성들이 사시사철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시대에 보국안민의 계책(輔國安民之計)으로 동학을 창시한다고 선언했다.<sup>13)</sup> 이렇듯, 세종조에 널리 사용되고, 다시 동학 창시자 수운에 의해 부활한 보국안민은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 전봉준의 「무장포고문」에서 거듭거듭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전봉준이 보국안민을 새삼스럽게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봉준에 있어 평화는 보국안민 네 글자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본다. 보국안민이란 “잘못되어 가는 나라를 도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편안히 한다”는 뜻으로, 나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민초들의 생명, 생업, 생활 전반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나라가 나라답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아 백성들의 생명, 생업,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도록 만든다는 뜻이다. 따라서, 「무장포고문」의 보국안민은 필자 나름으로 해석하자면 민초들의 생명과 생업, 생활 전반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이른바 ‘사회적 평화’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최제우 지음, 박맹수 옮김, 앞의 책, p. 47.

### Ⅲ. 「4대명의 및 12개조 기율」에 나타난 불살생(不殺生)

종래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 대부분이 간과해온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행동강령으로 알려진 사대명의(四大名義) 및 12개조 기율의 내용과 그것이 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에 걸친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 조사 및 현지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의 인구는 대략 1,052만 명 정도이며,<sup>14)</sup> 그중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의 인구가 혁명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 교통 등의 인프라가 부재했던 시대에 어떻게 그 많은 민초들이 혁명 대열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농민군의 행동강령인 4대명의와 12개조 기율에 나타난 농민군의 규율 엄정한 도덕성이 민초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냈다는 데 있었다.

예를 들면, 1894년 당시 전라도 구례에 거주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직접 목격했던 매천 황현(1855~1910)은 농민군에 대해 시종일관 비판적인 입장에서 『오하기문』<sup>15)</sup>이란 역사서를 서술했다. 그런데 매천은 『오하기문』에서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은 민폐를 전혀 끼치지 않은 반면에, 서울에서 파견된 흥계훈의 경군(京軍)은 막대한 민폐를 끼쳤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도교에서 간행되고 있

14)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의 인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894년 당시 일본에서 간행되고 있던 『코쿠민신문』 조선특파원이었던 기쿠치 겐조의 「동학당」 관련 기사 속에 1,052만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

15) 『오하기문』은 2016년에 김종익 선생에 의해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는 제명으로 다시 번역되어 역사비평사에서 나왔다.

던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지지신보(時事新報)』 등 일본에서 간행되고 있던 신문들은 조선 주재 일본인 특파원이 보내온 기사를 연재 하면서 조선 내지에서 각종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일본 상인 가운데 농민군에게 피해를 입은 상인은 단 1명도 없을 정도로 농민군의 규율은 엄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 중의원(衆議院) 의원이었던 다나카 쇼조(田中正造, 1841-1913)는 1896년에 쓴 「조선잡기(朝鮮雜記)」<sup>16)</sup>라는 글에서 동학농민군의 규율에 대해 ‘문명적’이라고까지 극찬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매천과 일본 신문 및 다나카 쇼조가 주목했던 농민군 측의 4대명의와 12개조 기율을 상세히 검토함과 동시에, 그 안에 담긴 평화 지향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894년 음력 3월 21일에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전면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3월 25일을 전후하여 오늘날의 전북 부안 백산성(白山城)에 결진(結陣)하여 진영을 확대 개편하고, 4대명의라는 행동강령과 함께 12개조 기율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up>17)</sup>

동도대장(東道大將: 동학농민군 대장)이 각 부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약속하기를,

(1) 매번 적을 상대할 때 우리 동학농민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가장 으뜸의 공으로 삼을 것이며, (2) 비록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3) 또한 매번 행진하며 지나갈 때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치지 말 것이며, (4)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이

16) 「조선잡기」는 2004년에 일본 도쿄 이와나미 서점에서 나온 다나카쇼조 문집 제1권 136쪽에서 140쪽까지 실려 있다.

17) 원문은 일본 외무성 산하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국 동학당 동정에 관한 제국공사관 보고일건(朝鮮國 東學黨 動靜에 關한 帝國公使館 報告一件)』에 실려 있다.

두터운 사람이 사는 동네 십리 안에는 절대로 주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東道大將 下令於各部隊長 約束曰 每於對敵之時 兵不血刃而勝者爲首功 雖  
 不得已戰 切勿傷命爲貴 每於行陣所過之時 切物害人之物 孝悌忠信人所居村  
 十里內 勿爲屯住)

〈12개조 기율〉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탐관은 쫓아낸다	따르는 자는 공경하며 복종한다
굶주린 자는 먹여준다	간교하고 교활한 자는 못된 짓을 그 치게 한다
도망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진휼(賑恤)한다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제거한다	거스르는 자는 타일러 깨우친다
아픈 자에게는 약을 준다	불효하는 자는 벌을 준다
이상의 조항은 우리의 근본이니, 만약 이 조항을 어기는 자는 지옥에 가들 것이다.	

주지하듯이,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농민군 측이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두는 시기는 1894년 3월 21일에 시작된 제1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부터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무혈점령하는 4월 27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전면 봉기를 단행하여 고부(古阜), 정읍(井邑), 부안(扶安), 흥덕(興德), 고창(高敞), 영광(靈光), 함평(咸平), 무안(務安), 장성(長城) 등 전라도 서남해 연안의 여러 고을을 파죽지세로 점령하였다. 또한, 황토재 전투(4월 7일)와 황룡촌 전투(4월 23일)에서 각각 지방 군대인 전라감영군과 중앙 군대인 경군(京軍)마저 연달아 격파하여 승리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마침내 전라도의 수부(首府) 전주성마저 무혈점령하기에 이른다.

제1차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농민군 측이 빛나는 승리를 거두는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배경의 하나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내건 보국안민이라는 혁명의

기치(旗幟)가 일반 백성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보국안민이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나라를 도와 백성들의 생명, 생업,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이었다. 만약, 보국안민을 내걸고 봉기한 농민군이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그것은 곧 ‘백성의 군대’를 자임하고 일어난 농민군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3월 25일경 전북 부안의 백산성에 집결하여 농민군 진영을 개편하는 ‘백산대회’를 전후하여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는 보국안민의 구체적인 실천강령에 해당하는 4대명 의와 12개조 기율을 제정, 선포했다. 백산에서 선포한 4대명 의와 12개조 기율은 바로 포고문에서 내내 강조했던 보국안민의 정신을 행동강령으로 구체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동강령의 핵심은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는 데 집중되었다.

농민군 지도부는 4대명 의와 12개조 기율에서 볼 수 있는 엄정한 기율 실천을 통해 일반 백성들의 생명과 생활, 생업을 보호하는 ‘백성의 군대’로서 손색없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가장 으뜸의 공으로 삼을 것이며, 비록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불살생의 정신을 최고 덕목으로 삼아 행동하는 농민군에 대해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각 고을 수령을 비롯하여 뜻있는 지식인과 부자들은 다투어 농민군 측에게 식량을 제공하였고, 잠자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각 군현의 하급 관리들은 자진하여 성문을 개방하여 농민군을 맞이했다. 그 덕분에 농민군은 40일이 넘도록 계속된 제1차 동학농민혁명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농민군의 기율 엄정함에 대해 매천은 동학농민군 측의 형벌은 사람 목숨 빼앗는 것을 가장 꺼려할 만큼 인도적이었다고 감탄한 바 있다.

요컨대, 동학농민군은 4대명 의와 12개조 기율 실천을 통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삼갔으며, 백성들의 생명, 생업, 생활에 해를 끼

치는 탐관오리를 제거하되 어디까지나 불살생을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바로 여기에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보국안민을 실현하고자 했던 ‘불살생의 평화’ 실현이라는 지향이 있었다.

#### IV. 「폐정개혁안 27개조」와 정도일신(政道一新)

동학농민혁명의 전사(前史)로 알려져 있는 1892년-1893년의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동학 지도부는 ‘척왜양(斥倭洋), 지방관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 금지, 동학 교조의 신원(伸冤)’ 등 세 가지 슬로건을 내세우고 충청도 공주(1893년 10월), 전라도 삼례(1892년 11월), 서울 광화문(1893년 2월), 충청도 보은 및 전라도 금구 원평(1893년 3월) 등지에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인 합법적인 집회를 열었다.<sup>18)</sup>

그런데, 교조신원운동의 꽃은 1893년 3월 10일부터 4월 초까지 충청도 보은(報恩)에서 열린 보은집회였다. 보은집회 당시 지도부는 집회 목적을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라고 선언함으로써 동학 교조 수운이 제시한 바 있는 보국안민의 구체적 방도를 왜(일본)와 양(서양)의 침탈로부터 국권과 민생을 보호하는 데서 찾고자 하였다. 보은집회에서 전면적으로 내건 ‘척왜양’ 슬로건은 당시 민중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은 물론 이려니와, 민중들의 정치의식을 배양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집회 지도부는 ‘척왜양만이 아

<sup>18)</sup> 1892년 10월 공주에서 시작되어 이듬해 4월 보은집회를 끝으로 끝난 교조신원운동이 합법적이었던 것은 그 집회가 바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규정하고 있는 ‘신소(伸訴)’ 제도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 지방관의 가렴주구에 대한 구체적 개혁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보은집회가 단지 반외세의 측면만이 아니라 반봉건의 측면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1893년 11월에 전봉준 등 고부의 동학 지도자들은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며,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한 다음,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 서울)로 직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모의한 이른바 ‘사발통문 모의’를 한 적이 있었다. 이 모의는 한 마디로 조병갑의 악정 때문에 빚어진 것이었고, 그 악정에 대한 두 차례의 합법적 청원을 모두 탄압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발통문 모의’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갑작스런 전임(轉任)으로 인해 그 실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1894년 1월 10일경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에 영임(仍任: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된 것을 계기로 고부민란, 즉 고부 농민봉기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교조신원운동과 사발통문 모의, 고부 농민봉기 등은 모두 지방관들의 가렴주구에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과 생업, 생활을 위협받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폐정(弊政)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 같은 농민군 측 움직임은 이른바 폐정개혁을 통한 보국안민의 실현, 즉 자신들의 생명, 생업, 생활의 안전 실현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속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폐정은 개혁되지 않았다.

2년여에 걸친 합법적 운동에 이어 사발통문 모의와 고부 농민봉기라는 비합법적 운동을 통한 폐정개혁 요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결과, 마침내 1894년 3월에는 제 1차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무장봉기 형태의 혁명운동이 일어나기에 이른다.

주지하듯이, 제1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21일부터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체결되어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으로부터 자진 철수하는 음력 5월 8일경까지 전개되었는데, 이 시기에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각종 포고

문(布告文) 및 격문(檄文), 원정(原情) 등의 형태로 조선왕조의 폐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요구를 지방 수령 및 조선왕조 지배층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제출하였으며, 그 같은 요구는 마침내 전주화약 당시 초토사 홍계훈에게 전봉준이 제출한 ‘폐정개혁안 27개조’로 집약되었다.

‘폐정개혁안 27개조’를 통해 농민군 지도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개혁하고자 했던 내용은 부패한 집권자(執權者)의 교체 바로 그것이었다. 즉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안민(安民)이라는 유가적 통치의 이상(理想)을 저버린 민씨(閔氏) 정권을 타도하고, 민심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던 대원군(大院君)을 추대할 것을 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군 지도부는 민씨 정권에 빌붙어 아첨을 하며, 안민과는 정반대로 학민(虐民) 행위를 일삼는 중앙 조정의 부패한 관리를 비롯하여 가렴주구를 일삼는 지방의 탐관오리 숙청을 통한 ‘정도(政道)의 일신’, 즉 정치혁명을 시도하였다.<sup>19)</sup>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 지도부가 지향했던 정치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개입 및 불법적인 탄압으로 인해 좌절된 직후 체포된 전봉준의 최후 진술에서 명료하게 확인되고 있다. 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은 1894년 12월 초에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된 직후 나주를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1895년 3월 말까지 전후 5차례에 걸친 심문을 받았다. 심문 과정에서 전봉준이 남긴 진술 내용은 앞에서 말한 『전봉준공초』로 남아 있으나, 정치혁명에 관한 내용은 당시 일본 영사의 취조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5월분 기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19) 박맹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왜 혁명인가,” 『생명의 눈을 보는 동학』 (모시는 사람들, 2014), pp. 233~236.

20) 『도쿄아사히신문』 1895년 3월 5일자 「동학당 대거괴와 그 구공」, 3월 6일자 「동학당 대거괴 심문 속문」 및 같은 날짜의 「동학수령과 합의정치」, 5월 7일자 「동

『도쿄아사히신문』 1895년 3월 5일자 5면의 「동학당 대거괴와 그 구공(口供)」에 의하면, 전봉준은 “나의 중국의 목적은 첫째 민족(閔族: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간신들을 물리쳐서 폐정을 개혁하는 데 있다”고 말한 다음, 이어서 민심을 잘 아는 몇 사람의 명망가를 선출하여 임금을 보좌함으로써, 안민의 정치를 이룩하고자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에 의하면, 전봉준은 끝까지 왕조(王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임금이 민심을 잘 파악하고 수렴하여 안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도(政道)의 일신(一新)’<sup>21)</sup>, 요컨대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에 가까운 구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비록 농민군 최고지도자 전봉준이 구상했던 정치혁명이 조선왕조를 부정하지 않는 입헌군주제에 가까운 것이었다고는 해도,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미 ‘집권자의 교체’를 목표로 한 정치개혁을 시도하고, 다시 제2차 동학농민혁명 단계에서는 안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로서 민심을 대변하는 명망가를 선출하여 임금을 보좌하게 하려 했다는 점에서 전봉준이 추구하고자 했던 또 다른 평화는 ‘정도의 일신’을 통한 정치혁명, 즉 ‘정치적 평화’ 실현으로 드러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전봉준공초」와 만국공법(萬國公法)

전봉준은 1892년 11월, 전라도 삼례에서 약 2개월에 걸쳐 전개되었던 교조신원운동<sup>22)</sup> 단계부터 동학 교단 내의 유력한 지도자의 1인으로 부

학당 거괴의 재판), 5월 8일자 「동학당 거괴 선고 여문」 등 참조.

21) 『도쿄아사히신문』 1895년 3월 5일자, 「동학수령과 합의정치」 참조.

상하고 있다. 그런데, 전봉준이 교조신원운동 지도자로 부상한 삼례집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척왜양이라는 반외세적 요구가 집회의 주된 요구로 등장하였고, 그 운동의 주도자 가운데 1인이 바로 전봉준이라는 사실이다.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표출된 척왜양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는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배외주의’(排外主義) 또는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요구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교조신원운동 단계, 특히 1892년 11월의 삼례집회 단계부터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간 내내 일관되게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척왜양이라는 슬로건이 단순한 배외주의적 요구이거나 폐쇄적인 민족주의적 요구가 아닌, 당시의 만국공법(萬國公法) 즉 근대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주창되어진 ‘합법적’ 요구였다는 점을 전봉준의 최후진술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다.

전봉준이 주도한 동학농민혁명은 제1차(1894년 3월, 무장기포)와 제2차(동년 9월, 삼례기포)로 대별되며, 1차 혁명은 주로 조선왕조 지배체제의 모순을 무력을 통해 제거하고자 했던 반봉건적 성격의 봉기이며, 2차 혁명은 일본군의 불법적인 경복궁 점령(음력 6월 21일)으로 초래된 조선의 ‘국난’을 타파하기 위해 일본군 구축을 명분으로 봉기한 항일 봉기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1차, 2차 혁명 모두 반봉건과 반외세라는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어찌됐든 이른바 ‘항일봉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2차 혁명과 관련하여 전봉준의 명확한 진술이 남아 있다. 아래 인용한다.<sup>23)</sup>

22) 이것을 일러 삼례집회(參禮集會)라 부른다. 삼례집회는 1892년 음력 11월초에 시작되어 약 1개월 뒤에 공식 해산했으나, 일부 해산하지 않은 동학지도자 및 신자들에 의해 이듬해 1월까지 산발적인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2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529.

문: 다시 기포(제2차 봉기-인용자 주)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更起包 何故)

답: 그 후 들으니, 귀국(貴國-일본; 인용자)이 개화(開化-내정개혁; 인용자)를 한답시고 처음부터 민간에게 일언반구 알림도 없고, 또 격서(激書-선전포고; 인용자)도 없이 군대를 거느리고 도성(都城-서울; 인용자)으로 쳐들어와 야반(6월 21일 새벽; 인용자)에 왕궁(王宮-경복궁; 인용자)을 격파하여 주상(主上-고종 임금)을 말함; 인용자)을 경동계 하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시골 선비와 일반 백성들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으로 분개를 이기지 못하여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일본군과 싸우되, 일차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청문(聽聞)하고자 하였다.

(其後聞則 貴國稱以開化 自初無一言半辭傳布民間 且無激書率兵入都城 夜半擊破王宮 驚動主上云 故草野士民等 忠君愛國之心 不勝慷慨 糾合義旅 與日人接戰 欲一次請問此事實)

위 내용에 따르면, 전봉준은 일본이 조선왕조와 조선의 백성들에게 일언반구 알린 일도 없이 제멋대로 남의 나라의 내정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거부한 조선왕조 정부에 대해 격서(檄書) 즉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점령하고 임금을 포로로 삼은 사실에 대해 ‘충군애국’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 ‘의병(義兵)’을 규합하여 일본군과 싸우되, 왜 불법을 저지르는가를 ‘청문’하고자 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볼 때 저촉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전봉준이 당시의 국제법, 즉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읽었다는 증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위의 진술은 그 어디를 읽어보아도 당시의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전혀 없다. 불법을 자행한 일본과 관련된 전봉준의 진술은 또 있다.<sup>24)</sup>

24)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p. 538.

문: 제차 기포(제2차 동학농민혁명; 인용자)는 일본군이 왕궁을 침범했기 때문에 다시 봉기했다고 하였는데, 다시 봉기한 후 어떻게 행동하고자 하였는가?

(再次起包 因日兵犯關之故再拳云 再拳之後 於日兵欲行何拳措耶)

답: 왕궁을 침범한 이유를 따지고자 하였다.

(欲詰問犯關緣由)

문: 그렇다면 일본군은 물론이고, 경성에 주둔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도 모두 몰아내려고 하였는가?

(然則 日兵與各人留住京城者 欲盡驅逐耶)

답: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의 외국인은 다만 통상만을 할 뿐인데, 일본인만은 유독 군대를 거느리고 경성에 주둔하는 까닭에 우리 국토를 침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不然 各人但通商而已 日人則率兵留陣京城 故疑誣侵掠我國境土也)

위 진술에서 전봉준은 2차 혁명을 일으킨 뒤 후에 무엇을 하고자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불법으로 왕궁을 침범한 일본군의 행위를 따지고자 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이외에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동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있다. 전봉준은 특히 일본만이 오직 군대를 서울에 주둔시키는 까닭은 조선의 국토를 ‘침략’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일본군을 ‘구축(驅逐)’하기 위해 2차 봉기를 단행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메이지(明治) 일본정부는 외무성이건 육군성이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총리대신을 필두로 한 여당이건 자유당(自由黨)을 필두로 하는 야당이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로 대표되는 지식인이건 일반 민중이건 간에 이구동성으로 일본군의 조선 출병과 조선왕궁 점령, 즉 일본군의 조선 침략 행위를 지지한 바 있다. 예컨대, 전봉준이 재판 과정에서 그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는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미명(未明)에 일본군이 조선왕궁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그것이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

한 행위였다고 그 부당성을 지적한 메이지 일본인은 단 한 명도 없다.<sup>25)</sup>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전봉준은 만국공법으로 대표되는 근대 국제법은 물론이고 조선의 국내법까지 어기면서까지 침략행위를 일삼는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는 순간까지 어느 한 구석도 당시의 국제법에 어긋남이 없는 진술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요컨대, 전봉준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자신의 행위를 만국공법, 곧 근대 국제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행위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볼 때 전봉준은 국제법에 근거한 조선의 평화 수호를 위하여 행동했고, 죽을 때까지 그러한 신념을 일관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전봉준은 동학을 ‘혹호’, 즉 목숨을 걸 정도로 대단히 좋아했다. 동학은 수심경천과 보국안민, 곧 개인의 영성 함양과 사회혁명의 이념을 두루 갖춘 ‘도학’이었기에 전봉준은 동학을 ‘혹호’했다. 수심경천과 보국안민을 평화와 관련하여 해석한다면 개인의 내면적 평화 실현과 함께 사회적 평화 구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영성과 혁명의 통일이

<sup>25)</sup>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은 음력 6월 21일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한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건 당초부터 은폐에 급급하였다. 경복궁 불법 점령 사실의 진실은 100년이 지난 1994년에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의 사료 발굴을 통해 밝혀졌다(中塚明, 『歴史の偽造をただす』(東京: 高文研, 1997)).

바로 동학이라는 도학이 추구하는 이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봉준은 동학을 목숨을 걸 정도로 좋아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봉준의 평화사상은 동학의 사상과 동학의 접포 조직에 기반한 동학 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극적으로 표출되었다. 그 첫째는 1894년 음력 3월 20일경에 포고한 「무장포고문」을 통해 보국안민의 이념으로 드러났다. 포고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보국안민의 이념은 일찍이 동학 교조 수운이 「포덕문」에서 제시한 ‘보국안민지계’로 동학의 지향을 충실히 계승한 것이기도 했다. 보국안민이란 ‘잘못되어가는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함’, 곧 서세동점과 삼정문란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생명과 생업, 생활을 위협받고 있던 민중들을 구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보국안민’을 통한 민초들의 생명과 생업, 생활 보장이야말로 평화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다음으로 전봉준의 평화사상이 가장 감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로 1894년 음력 3월 25일경 ‘백산대회’를 전후하여 발표한 「사대명의와 12개조 기율」이다. 이것은 동학농민군의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동강령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동학농민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으뜸의 공으로 삼으며,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불살생(不殺生)에 있었다. 바로 이 같은 불살생의 정신 덕분에 동학농민군은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빛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 같은 동학농민군의 규율 실천은 이웃 일본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문명적’이라고까지 극찬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로 전봉준의 평화사상은 교조신원운동 단계(1892~1893)에서 고부농민봉기 단계(1894년 1월)를 거쳐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단계(1894년 3~5월)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폐정개혁 요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전봉준을 필두로 한 농민군 측의 폐정개혁 요구는 1894년 음력 5월



7일경 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출한 이른바 「폐정개혁안 27개조」를 통해 ‘정도의 일신’ 곧 부패한 민씨 정권 교체를 통한 민생의 보장이라는 형태로 집약되고 있는바, 이것은 곧 정치혁명을 통한 나라 전체의 평화 실현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봉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1894년 음력 9월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삼례기포)을 주도한 이유로 당시의 국제법인 만국공법을 어기고 심지어 조선의 국내법까지 어기면서 침략행위를 일삼는 일본군을 ‘구축’하기 위해 봉기했다고 진술했다. 전봉준은 자신의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합법(달리 표현하자면 평화적)이었음을 당당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는 전봉준이 만국공법적 국제질서를 깨뜨리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만국공법적 국제질서의 회복, 곧 만국공법적 국제질서가 준수됨으로써 찾아올 국제평화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 접수: 2016년 10월 31일 / 심사: 2016년 11월 1일 / 게재확정: 2016년 12월 10일

## 【참고문헌】

- 강재언.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1982.  
김의환. 『전봉준 전기』. 서울: 정음사, 1981.  
박맹수. 『생명의 눈을 보는 동학』. 모시는 사람들, 2014.  
오지영. 『동학사』. 서울: 영창서관, 1940.  
최제우 지음. 박맹수 옮김. 『동경대전』.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국사편찬위원회. 『동학란기록』 하. 서울: 탐구당, 1971.  
崔炳鉉. 『南原郡 東學史』. 필사본, 1924.  
中塚明. 『歴史の偽造をただす』. 東京: 高文研, 1997.

## The Peace Theory of Jeon Bong-jun

Park, Maeng Soo (Wonkw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article contemplates the pacifist thought of Jeon Bong-jun (1855-1895), leader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s expressed through his statements and actions during the revolution, and has four main arguments. First, Jeon Bong-jun's peace theory which he sought to realize is contained in the phrase "Boguganmin"(promote national interests and provide for the welfare of the people) which he expounded in the Mujang Declaration issued on March 20, 1894. Boguganmin was the manifestation of a peace idea that promoted livelihood, occupational, and personal security for the subjects of Korea who were bemoaning the corruption of the royal Joseon rule. Second, Jeon Bong-jun proclaimed and enacted a four-point code of conduct for the Donghak Peasant Army which contained twelve orders, and the goal of this code was to ensure that no life was taken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This shows the appreciation for the sanctity of life in Jeon Bong-jun's peace thought. Third, Jeon Bong-jun had consistently called for "renewing the path of politics" from before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during the Gyojosinwon Movement. Jeon Bong-jun's consistent argument for "renewing the path of politics" was to realize a political peace. Finally, Jeon Bong-jun stated that the Second Donghak Peasant Revolution was started to demand that Japan obey the laws of all nations which it had been breaking. This proves that Jeon Bong-jun sought to realize world peace based on

international law.

Key words: Jeon Bong-jun, Boguganmin, sanctity of life, political reform, law of all nations.

**박맹수(Park, Maeng Soo)**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역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장,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